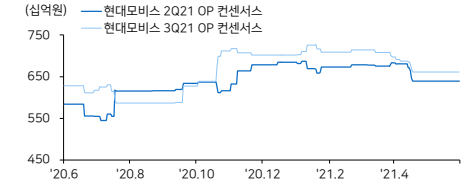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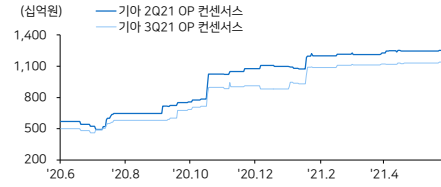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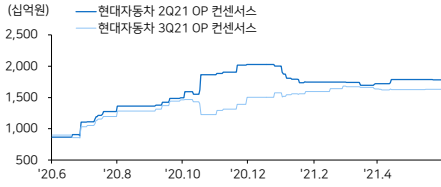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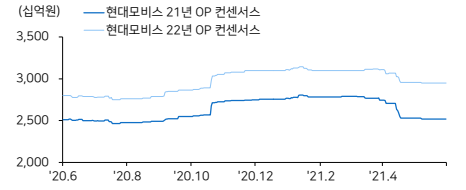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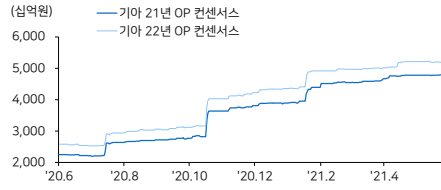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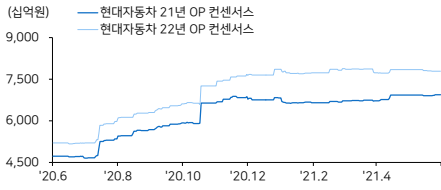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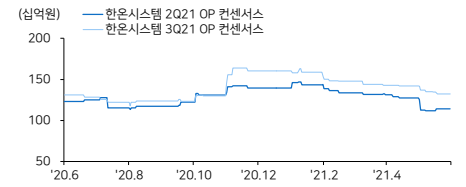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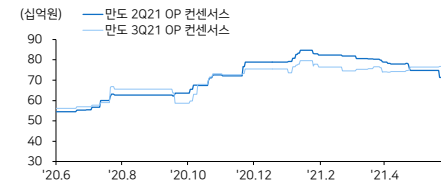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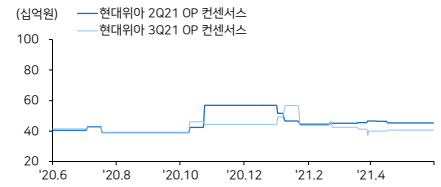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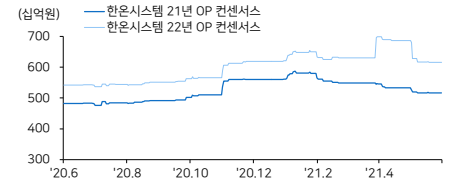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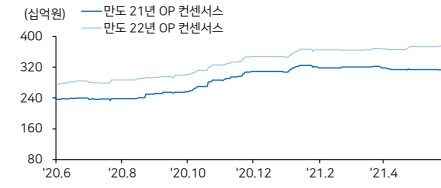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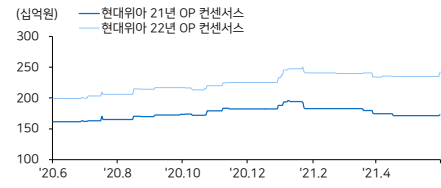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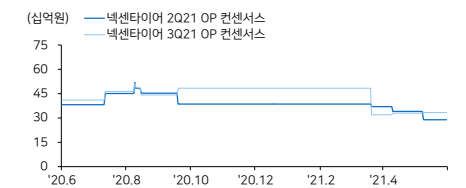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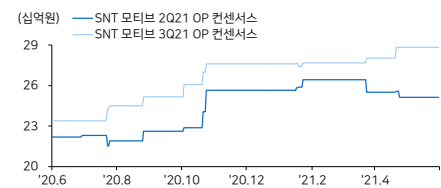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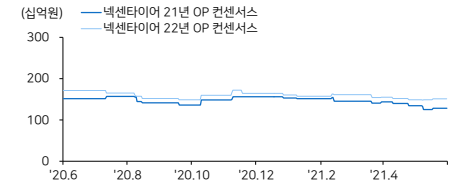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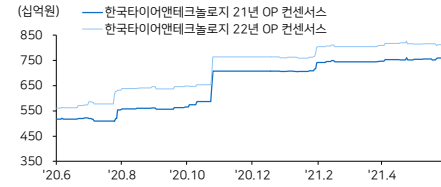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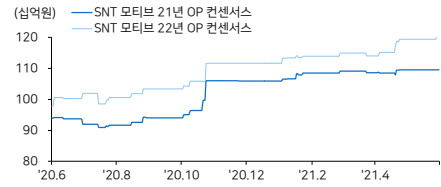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북미 시장 '美 현지생산 확대 추진' (THE GURU)

무노드 현대차 북미사업부 사장은 이 매체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본사에 현지 생산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함. 또한 "현지 생산은 현지 수요가 많은 모델을 우선순위로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투싼이 1순위로 그 다음이 샌타크루즈"라고 덧붙임.
<https://bit.ly/3irNHWB>

"미래 준비하자"..현대차, 단행기간 3년 연장 추진 (이데일리)

현대차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개정 주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함. 8일 사측은 최근 노조와의 교섭에서 단행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을 요구안으로 제시함. 지금은 2년마다 한차례 단행을 개정하는 중.
<https://bit.ly/3iojWMZ>

페달서 밟았는데 '유령 가속'...현대차 아이오닉 이상 현상 (KBS)

2017년 생산된 현대차의 아이오닉 모델에서, 가속 페달에서 밟았는데도 차 속도가 올라가는 이른바 '유령 가속' 현상이 나타남. 현대차가 반년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차량 결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
<https://bit.ly/3zcc516>

굿이어, 쿠팡타이어 인수 매듭...글로벌 타이어 업계 지각변동 (THE GURU)

미국 1위 타이어 회사인 굿이어타이어가 경쟁사 쿠팡타이어와의 인수합병 작업을 마무리함. 몸집을 불린 굿이어 등장으로 글로벌 타이어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공동 기술 개발과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
<https://bit.ly/2T9i93F>

현대차, 4만달러 시대 눈앞... 브랜드 가치 세계서 인정 (동아일보)

독일 시장조사업체 슈타티스타의 2021년 세계 주요 업체별 평균 차 값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차의 평균 판매가격은 4만714달러(약 4527만 원)로 예상된다. 제네시스의 미국 안착과 SUV 판매량 상승으로 ASP가 오름.
<https://bit.ly/3cuuCWv>

아이오닉5 4000대, EV6 2200대...현대·기아 '물량형' 나선다 (머니투데이)

현대차는 이달부터 올해 아이오닉5 생산량 26,500대를 맞추기 위해 월생산량 목표를 4,000대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기아 EV6 역시 계획대로 양산할 예정. 반도체 보릿고개를 건너고, 부품상황 역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https://bit.ly/3x4uQeQ>

애플카에 中 배터리 탑재되나...애플, CATL·BYD와 협상 중 (한국경제)

로이터통신은 8일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중국 비야디(BYD), 닝더스다이(CATL)와 배터리 공급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리튬인산철 배터리에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함. 애플은 2024년 목표로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짐.
<https://bit.ly/25m33Z>

테슬라, 美 배터리 공장건설 허가신청서 제출 (THE GURU)

테슬라의 지난 3일(현지시간)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에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함. 독일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유럽 내 첫 생산 거점으로, 4680 배터리셀이 제조가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함.
<https://bit.ly/3x8mkv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